

《광릉수목원 사진일기》

작고 아름다운 풍경과 대화하기

글_송보경 기자

일기를 쓰시나요. 저는 썼다 안 썼다 합니다. 인터넷 미니홈피에 다이어리 메뉴가 있길래 심심풀이로 몇 줄씩 자판을 두드려 그날의 기록을 남기곤 했는데, 웬지 시들해졌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써 온 일기장이 있긴 한데, 매번 들여다 볼 때마다 내가 봐도 읽기 싫은 글씨체 - 심지어 휘갈겨 써 놓은 - 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법 많은 날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어서 나름대로 뿌듯해 하곤 하지만 역시 일기 쓰기란... 힘든 작업입니다.

일기는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부터 시작해 배우고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날은 단 한 줄도 쓸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하루에 일어난 몇 가지 굵직한 사건과 수많은 머릿속 생각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져 버리기 때문이죠.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때때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써 놔야 해"라는 강박으로 작용하는 것도 일종의 병인가요.

무엇보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일기를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날의 일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적어 내려간 날은 여지없이 손목과 손가락이 저립니다. 기본 4장을 훌쩍 넘기는 그 미련한 짓을 매일매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다간 한 달도 못 버티고 제 오른손은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될 일이 뻔하니까요. 그렇다면 일기란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일기쓰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작업일까요.

《광릉수목원 사진일기》. 저자도 내용도 책 표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책을 손에 잡고 펼쳐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지껏 딱 한 번 가본 광릉수목원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제목에 '일기'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한 번 뼈죽이 발을 들여놓았던, 그것도 달랑 나무와 풀들이 내뿜는 청정공기만 1시간 가량 들이마셨던 그 순간의 느낌이 좋아 광릉수목원에 대한 기억은 신선합니다.

가깝고도 먼 어느 동네로 추억하던 그곳이 책에 담겨 있었습

니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니 내가 갖고 있는 기억들은 한낱 표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

목원의 사계절을 독특하게 담아낸 책 속 이야기는 오히려 낮설기까지 합니다. 한 가지, 기억과 책의 사진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수목원 풍경은 어디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어도 오로지 팔랑거리거나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활짝 피었거나 수줍게 봉우리인 채 고개숙인 꽃, 그리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디서건 제 뿔으로 꼬물거리는 벌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고목의 거친 껍질 사이를 열맞춰 걸어가는 왕개미 부대를 무심히 봤던 10여년 전의 그날이 그래서 가깝게 생각났습니다.

광릉수목원의 사계절 풍경을 담은 사진마다에는 작가의 상상력과 감수성이 짙게 배어있는 그림과 글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사진과 그림.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법한 순간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말해야겠네요. 커다랗게 망을 쳐 놓은 거미줄위로 빛물이 알알이 맺힌 것을 보고 "거미줄은 빨랫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시들어 말라버린 삐죽나리 꽃을 노트에 가지런히 진열해 그 밑에 오선을 그려 놓으니 영락없이 음표가 되어 버립니다. 풍선덩쿨 씨앗에다가 얼굴을 새긴건 또 얼마나 앙증맞은지... 진득찰, 멀가치, 금평의다리, 물봉선, 큰팽이밥, 사위질빵 등 생소한 꽃이름들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꽤 재미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도저히 학교에, 회사에 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반짝이는 봄날 유치원 꼬맹이들이 줄 지어 소풍 가는 것을 봤을 때, 밤새 눈이 내린 날 아치 눈이 일찍 떠졌을 때" 작가는 이런 날들이 오면 주저 말고 광릉수목원으로 달려가라고 권합니다. **한글**



《광릉수목원 사진일기》
공혜진 글·사진·그림 | 안그라픽스 | 228쪽 | 값 13,000원